

일본의 2023년 노동시장 전망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총괄연구위원)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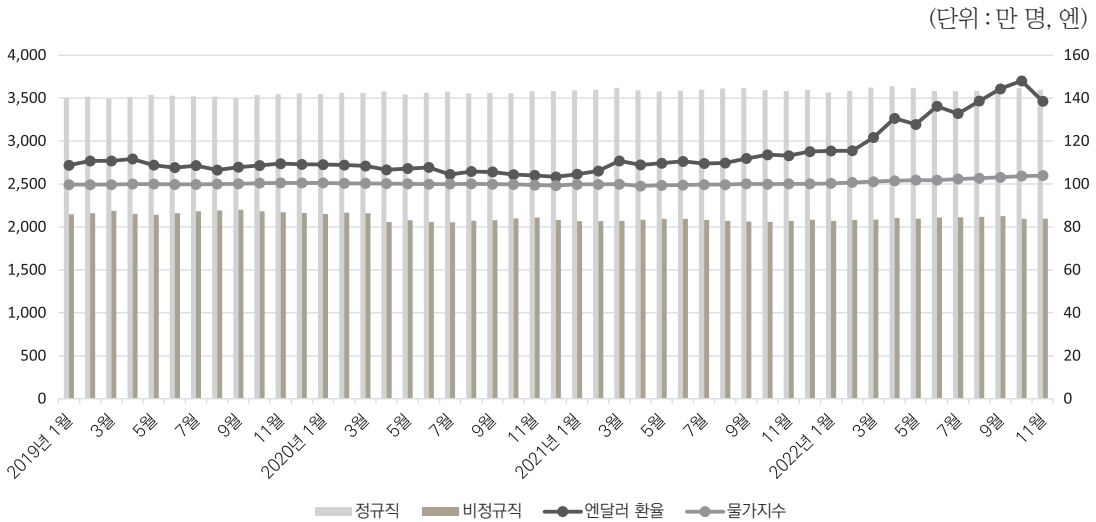
2022년은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세계경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 외 국가의 달러환율이 높아지고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변화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환율이 크게 올랐지만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예외적이다.

이 글에서는 2022년 일본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 2023년 노동시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 물가, 환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추이

2022년은 코로나19 영향 지속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인상되어 기업경영의 악화 및 불투명성이 심화하여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지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먼저 물가지수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2022년에 접어들어 높아지기 시작해 11월에

[그림 1] 일본의 물가지수, 환율 및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수 추이



주: 환율은 매월 말일 기준, 물가지수는 2020년 7월 기준.

자료: 総務省統計局(2022a), 「労働力調査: 長期時系列データ」, <https://www.stat.go.jp/> (2023.1.17); 総務省統計局(2022b),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2年(令和4年) 11月分(2022年12月23日公表)」, <https://www.stat.go.jp/> (2023.1.17).

가장 높았지만 103.9에 그쳤다. 물가지수가 높아진 주요 요인은 엔저로, 엔달러 환율은 2022년 1월 115.43엔 이후 계속 올라 10월에는 148.01엔을 기록했다. 환율 상승은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반면 일본은 올리지 않은 영향이 컸다. 2022년 11월부터 환율은 안정을 찾고 내려가는 추세인데, 2023년 1월 5일 132.37엔을 기록했다. 2022년 들어 환율이 크게 올랐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경제변화는 고용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022년 1월 정규직 노동자는 3,564만 명이었는데 4월에는 3,640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11월에는 3,597만 명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22년 1월 2,071만 명에서 9월 2,126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10월에는 2,095만 명이었다. 즉 2022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소폭 증감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에 근접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실업률과 실업자 수 추이 및 실업 원인

코로나19 전 일본의 실업률은 2%대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이 점차 증가하여 2020년 10월 3.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표 1 참조). 그후 실업률은 소폭 증감을 거듭하다가 2022년 11월 2.5%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전 수치인 2% 초중반까지 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실업률을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실업률이 여성보다 높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가 그러했는데, 남성 실업률은 3% 초반을 기록했다. 반면 여성 실업률은 최고치가 3.0%로 남성 최고치보다 0.5%p 낮았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5~24세 및 25~34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는데, 남성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15~24세를 기준으로 남성은 2021년 1

<표 1> 남녀 전체 및 성별, 연령별 실업률 추이(계절조정치, 2019년 1월~2022년 11월)

(단위: %)

	전체 실업률	남성						여성					
		계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계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19년 1월	2.5	2.6	3.7	3.7	2.3	1.8	2.6	2.6	3.2	3.1	2.6	2.2	2.0
2월	2.4	2.6	3.8	3.7	2.3	1.9	2.4	2.4	3.2	2.8	2.3	1.9	2.2
3월	2.5	2.8	4.2	3.9	2.5	2.2	2.3	2.5	3.1	3.5	2.0	2.1	2.1
4월	2.4	2.6	3.8	3.1	2.3	2.2	2.5	2.5	3.4	3.4	2.2	2.2	1.9
5월	2.3	2.6	4.2	3.4	2.2	2.1	2.2	2.4	3.1	3.3	2.1	1.9	1.9
6월	2.3	2.6	4.0	3.7	2.2	2.1	2.2	2.2	3.5	2.5	1.9	1.9	1.7
7월	2.3	2.4	3.1	3.1	1.9	2.1	2.1	2.2	3.4	2.6	2.2	1.9	1.6
8월	2.3	2.5	3.9	3.0	2.1	2.0	2.4	2.2	3.3	2.9	1.9	1.8	1.7
9월	2.4	2.7	5.1	3.4	2.1	1.9	2.6	2.3	4.0	2.9	2.2	1.9	1.7
10월	2.4	2.6	4.4	3.5	2.0	2.1	2.2	2.4	4.8	3.0	2.0	1.8	1.7
11월	2.3	2.4	3.8	3.3	1.9	1.9	2.2	2.2	3.9	2.8	1.8	1.9	1.8
12월	2.2	2.5	3.7	3.7	2.0	1.9	2.3	2.2	3.0	2.5	2.1	1.8	1.9
2020년 1월	2.4	2.6	4.1	3.5	2.3	1.9	2.5	2.4	3.1	3.5	2.2	1.8	2.1

	전체 실업률	남성						여성					
		계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계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월	2.4	2.7	4.7	3.5	2.2	1.9	2.7	2.4	3.5	3.5	1.7	2.1	1.8
3월	2.5	2.8	4.0	3.8	2.3	2.2	2.8	2.5	3.8	3.1	2.3	2.2	1.7
4월	2.6	2.9	5.3	4.0	2.5	2.1	2.4	2.5	4.1	3.3	2.1	2.2	2.0
5월	2.8	3.2	5.7	4.3	2.8	2.2	3.0	2.6	4.3	3.5	2.2	2.3	2.1
6월	2.8	3.2	5.1	4.0	2.8	2.4	2.9	2.7	3.5	3.8	2.6	2.3	1.9
7월	2.9	3.1	5.6	4.0	2.8	2.4	2.7	3.0	4.5	3.9	2.5	2.6	2.4
8월	3.0	3.2	5.2	4.2	2.8	2.4	2.8	3.0	4.6	4.5	2.4	2.5	2.4
9월	3.0	3.3	4.4	4.6	2.8	2.5	3.2	2.9	4.1	4.3	2.1	2.4	2.4
10월	3.1	3.5	5.6	4.5	3.2	2.5	3.4	2.9	4.2	4.3	2.1	2.5	2.4
11월	2.9	3.4	5.0	4.3	3.0	2.7	3.4	2.7	4.4	3.4	2.2	2.2	2.2
12월	3.0	3.4	6.2	4.5	2.6	2.7	3.3	3.0	4.4	3.9	2.2	2.6	2.7
2021년 1월	3.0	3.4	6.3	4.2	2.9	2.7	3.1	2.9	5.1	3.6	1.9	2.5	2.6
2월	2.9	3.3	5.1	4.1	2.7	2.9	3.1	3.0	4.6	4.0	2.5	2.6	2.2
3월	2.7	3.0	5.0	3.8	2.4	2.3	3.0	2.6	4.5	3.2	2.3	2.2	2.3
4월	2.8	3.3	5.0	4.9	2.4	2.4	3.4	2.6	3.9	3.1	2.6	2.1	2.3
5월	2.9	3.4	4.6	4.6	2.5	2.7	3.6	2.8	4.1	3.4	2.7	2.4	2.3
6월	2.9	3.2	4.8	4.6	2.4	2.4	3.2	2.9	4.1	3.3	2.5	2.6	2.7
7월	2.8	3.2	5.4	4.2	2.6	2.5	3.0	2.6	3.5	3.2	2.2	2.2	2.4
8월	2.8	3.2	4.7	4.2	2.8	2.5	3.0	2.6	3.9	3.0	2.6	2.0	2.4
9월	2.8	3.0	4.5	4.0	2.5	2.6	2.7	2.7	4.1	3.1	2.5	2.1	2.4
10월	2.7	2.9	4.9	3.6	2.2	2.3	2.6	2.7	3.4	3.1	2.2	2.3	2.6
11월	2.8	3.1	6.2	3.7	2.6	2.4	2.9	2.7	3.7	3.1	2.5	2.4	2.5
12월	2.7	3.0	5.8	3.0	3.0	2.1	2.8	2.6	3.8	3.5	2.3	2.1	2.2
2022년 1월	2.8	3.2	5.4	3.5	2.9	2.4	3.3	2.6	4.1	3.9	2.2	2.1	1.8
2월	2.7	3.2	3.9	4.1	2.8	2.5	3.4	2.7	3.7	3.8	2.1	2.2	2.3
3월	2.6	2.8	4.6	3.5	2.3	1.9	3.0	2.7	3.4	3.3	2.6	2.0	2.5
4월	2.5	2.9	4.8	4.3	2.5	2.3	2.2	2.4	3.5	3.1	2.5	2.0	1.7
5월	2.6	3.0	4.6	4.6	2.1	2.5	2.5	2.7	3.1	3.5	2.4	2.4	2.4
6월	2.6	2.9	5.0	3.7	2.3	2.4	2.4	2.7	3.9	3.6	2.1	1.9	3.1
7월	2.6	2.9	5.3	4.1	2.5	2.0	2.8	2.4	3.0	3.0	2.5	2.0	2.3
8월	2.5	2.9	4.9	4.2	1.9	1.9	3.2	2.5	3.3	2.9	2.8	1.8	2.3
9월	2.6	2.9	4.6	4.1	2.5	2.1	2.7	2.5	3.9	3.4	2.2	1.9	2.2
10월	2.6	2.8	4.7	3.8	2.6	2.0	2.6	2.5	5.0	2.9	2.4	1.8	1.9
11월	2.5	2.9	6.9	2.9	2.6	2.3	2.4	2.3	3.6	3.2	2.0	1.5	2.4

자료 : 総務省統計局(2022a), 「労働力調査: 長期時系列データ」, <https://www.stat.go.jp/> (2023.1.17).

월 실업률이 6.3%로 매우 높아 남성 전체 평균인 3.4%의 약 2배에 달했는데, 여성은 같은 달 5.1%로 여성 전체 평균인 2.9%보다 높지만 남성만큼 높지 않았다. 이후 남녀 실업률 모두 조금씩 감소하여 남성은 4%대, 여성은 3%대를 기록했는데, 최근 다시 급증하여 남성은 2022년 11월 6.9%, 여성은 10월 5.0%까지 올랐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급격한 물가 상승의 영향이 우려된다.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2020년 10월 217만 명이였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월별 실업자 수의 증감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11월에는 173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150만~160만 명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근접한 수치이다(표 2 참조).

실업자의 구직 이유를 보면 크게 “이직”과 “신규 구직”으로 나뉜다. “이직”은 2020년 10월 148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여 2022년 11월에는 112만 명으로 최고

<표 2> 전체 실업자 수 및 구직 이유별 실업자 수 추이(2019년 1월~2022년 11월)

(단위:만 명)

	전체 실업자 수	이직					신규 구직			
		계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이직	계	졸업생 미취업자	소득이 필요해서	기타
			계	정년 또는 계약 만료	회사 사정					
2019년 1월	173	116	41	18	23	74	43	5	21	16
2월	164	109	39	16	22	69	38	5	18	15
3월	172	119	38	18	22	79	37	5	16	15
4월	166	113	38	17	21	74	36	5	17	15
5월	160	107	37	15	22	68	38	6	18	13
6월	160	103	35	15	21	67	40	5	20	16
7월	156	106	35	18	18	69	36	4	18	14
8월	156	106	36	16	20	70	34	5	17	12
9월	166	105	35	16	20	69	41	5	18	17
10월	166	107	35	14	22	70	41	4	22	14
11월	157	104	37	16	22	66	36	4	18	15
12월	156	101	35	14	20	65	39	4	22	14
2020년 1월	165	110	38	17	21	71	39	5	20	15
2월	167	115	41	18	24	73	39	6	18	15

	전체 실업자 수	이직					신규 구직			
		계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이직	계	졸업생 미취업자	소득이 필요해서	기타
			계	정년 또는 계약 만료	회사 사정					
3월	175	118	47	19	27	70	43	6	22	16
4월	178	116	46	16	29	70	49	6	26	17
5월	190	125	51	18	33	73	51	7	29	16
6월	191	131	58	19	38	73	47	5	27	15
7월	198	129	55	19	36	74	49	7	26	16
8월	205	132	59	21	39	72	52	7	26	19
9월	207	137	63	24	38	75	50	7	26	17
10월	217	148	69	26	43	80	45	7	23	15
11월	204	134	62	21	41	70	50	8	26	17
12월	210	140	64	22	41	76	51	10	26	17
2021년 1월	206	138	64	23	41	74	53	9	28	18
2월	204	136	65	21	44	72	56	7	30	19
3월	187	124	55	17	38	70	54	7	27	19
4월	197	136	61	22	39	74	49	7	24	18
5월	202	143	63	23	40	80	48	7	24	18
6월	201	135	56	21	36	78	49	8	25	16
7월	193	129	57	19	38	72	48	7	25	16
8월	192	127	53	19	34	75	50	6	25	19
9월	190	124	54	18	36	71	49	7	26	15
10월	184	119	49	19	30	70	50	8	27	17
11월	192	125	50	18	30	76	52	8	27	16
12월	187	123	53	20	32	70	49	8	27	14
2022년 1월	191	130	59	21	39	71	49	8	27	15
2월	188	132	60	20	39	74	45	9	21	16
3월	179	121	55	23	33	67	46	8	23	15
4월	176	116	43	17	27	73	46	7	23	16
5월	180	125	48	18	29	79	46	5	24	17
6월	180	120	46	21	26	73	45	6	21	17
7월	176	117	43	16	26	75	45	8	25	13
8월	175	113	43	17	27	69	50	8	26	17
9월	183	117	43	16	27	73	50	10	23	18
10월	178	107	41	15	26	65	52	7	29	18
11월	173	112	42	17	25	71	44	8	24	12

자료: <표 1>과 동일.

치의 75.7%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으로 나뉜다. “비자발적 이직”은 2020년 10월 69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11월에는 최고치의 60.9%인 42만 명으로 줄었다. “비자발적 이직”은 다시 “정년 또는 계약 만료”와 “회사 사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2020년 10월 26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 11월에는 최고치의 65.4% 수준인 17만 명으로 감소했다. 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10만~20만 명 대를 기록하다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1년 2월에는 두 배에 달하는 44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 11월에는 25만 명으로 최고치의 약 절반에 불과했다.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은 경기변동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추이는 코로나19 영향에서 거의 벗어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자발적 이직”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 2020년 10월과 2021년 5월에 8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 11월 71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2019년 이후 70±10만 명 대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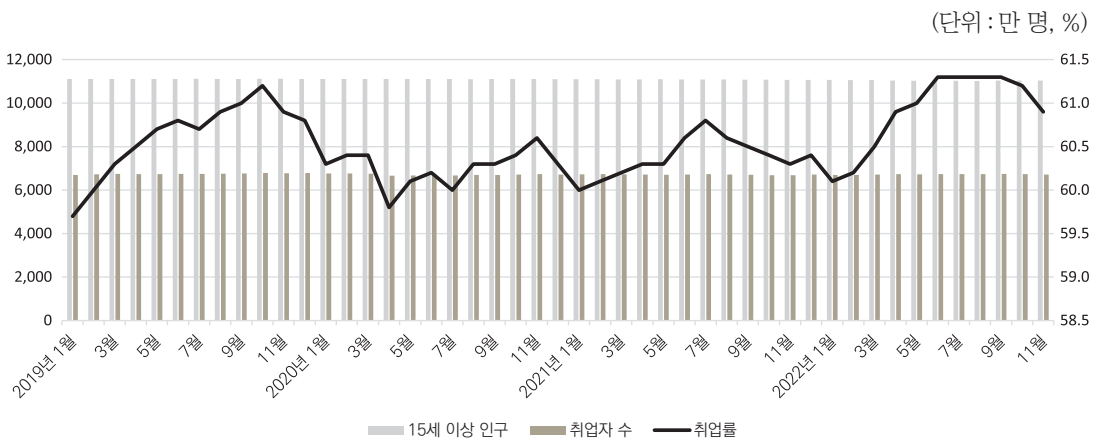
“신규 구직”은 2021년 2월 5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직” 양상과는 다른 추이를 보인다. 즉 “이직”의 최고치는 2020년 10월, “신규 구직”의 최고치는 2021년 2월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최악이었던 기간에는 신규 구직활동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약해지는 기간에 구직활동을 한 결과로 보인다. “신규 구직” 중 “졸업생 미취업자”의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 10월과 2022년 9월의 10만 명은 코로나19 전이었던 4만~5만 명의 2배에 달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 필요해서” 신규 구직하는 경우는 2021년 2월 30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 11월 24만 명을 기록했다. 다른 구직 이유에 비해 감소폭이 적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장 더딘 모습이다. 즉 코로나19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구직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 29만 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엔저 및 물가인상으로 기업의 구인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즉 실업수치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편, 엔저와 물가인상 영향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취직이 쉽지 않아 구직자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 노동력 부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고용상황은 코로나19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영향을 받았더라도 거의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력 부족이다.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1월 1억 1,119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그보다 0.7% 감소한 1억 1,037만 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는 2019년 10월 6,786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증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2020년 4월에 6,664만 명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들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9월 6,743만 명에 이르렀다. 11월에는 6,713만 명으로 9월에 비해 30만 명이 감소했다. 취업률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2020년 4월에는 59.8%로 60%를 하회한 이후 회복하여 2022년 5월부터는 61%대를 유지했다. 예외적으로 11월만 60.9%로 61%를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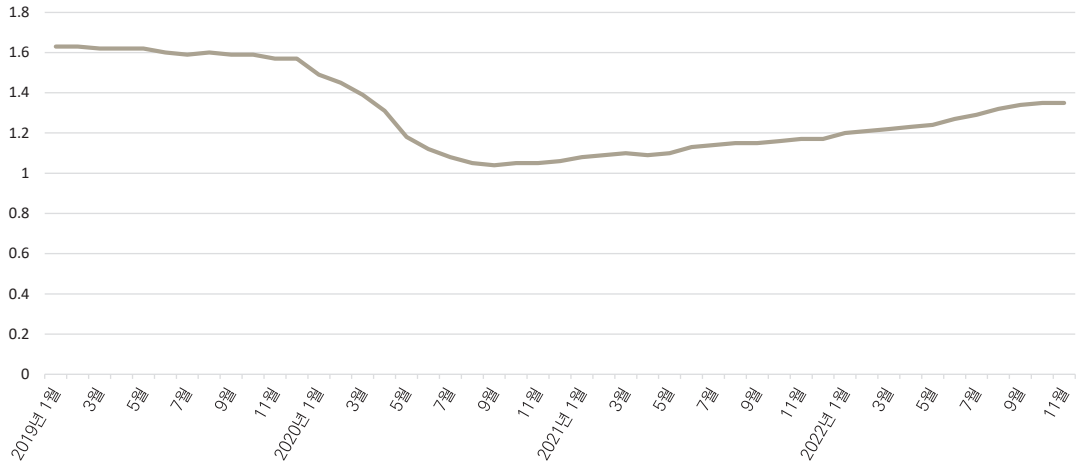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취업자 수는 그만큼 감소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 유효求人배율은 1.5배를 넘었는데 2020년 들어 급격히 낮아져 2020년 9월 1.04배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림 3 참조). 그러나 이 역시 1배를 웃돌아 최악의 경기상황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그림 2]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수 및 취업률 추이(2019년 1월~2022년 11월)



자료: <표 1>과 동일.

[그림 3]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 2019년 1월~2022년 11월)



자료: <표 1>과 동일.

있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누그러지고 유효구인배율이 증가하여 2022년 9월부터는 1.3배를 넘고 있다. 즉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관찰되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심각하며,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표 3 참조). 2021년 말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하여 2022년 12월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치에 근접했다. 즉 노동력 부족 상황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특히 유효구인배율이 높은 직종은 보안·경비업(7.26배), 건축·토목·측량업(6.08배), 건설·채굴업(5.66배), 간병·보건의료·가사서비스업(3.20배) 등으로 주로 보안, 건설 및 고령자 관련 서비스업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¹⁾ 지역별로 보아도 모든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

NHK는 코로나19 이후 도시탈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²⁾ 총무성에서 발표한 주민기본대장에 따르면 도쿄의 인구는 2021년 1월 1일 1,384만 3,525명에서 2022년 1월 1

1)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令和4年11月分)について」, 2022.12.27.

2) NHK, 「“東京一極集中”に変化の兆し 人口移動データで読み解く 移住の現場は…」, 2022.1.28.

일 1,379만 4,933명으로 4만 8,592명 감소했다.³⁾ 인구 감소의 주 요인은 사망자 수 증가로 1년간 사망자가 3만 2,878명에 달했다(외국인 제외). 사망자를 제외한 2021년 1년간 인구 증감은 도쿄의 경우 일본인 1만 2,841명 증가, 외국인 3만 734명 감소로 외국인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일본인 증가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8만 7,308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도쿄 도심(23개 구)에 한정하면 전출자가 전입자를 1만 4,828명 초과했는데 전출자가 전입자를 초과한 것은 최초이다. 도쿄 도심인구 감소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

<표 3> 고용인원 판단지수

(단위 : %p)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2019년 3월	-23	-18	-29	-35	-39
6월	-21	-14	-29	-34	-36
9월	-21	-12	-31	-32	-36
12월	-21	-11	-31	-31	-34
2020년 3월	-20	-11	-30	-28	-31
6월	-3	9	-14	-6	-7
9월	-2	6	-12	-7	-6
12월	-4	4	-13	-10	-13
2021년 3월	-5	0	-13	-11	-15
6월	-7	-2	-10	-14	-16
9월	-8	-5	-11	-16	-21
12월	-12	-9	-15	-21	-26
2022년 3월	-14	-10	-18	-23	-28
6월	-16	-10	-22	-23	-28
9월	-17	-11	-26	-27	-32
12월	-21	-14	-28	-30	-34

주 : 1) 고용인원 판단지수는 고용인원 과잉에서 부족을 뺀 값으로, 마이너스는 고용인원 부족을 의미함.

2) 대기업은 자본금 10억 엔 이상, 중견기업은 1억 엔 이상 10억 엔 미만, 중소기업은 2천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

자료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2), 「主要労働統計指標」, 2022.12.31.

3) 総務省(2022),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人口動態及び世帯数」, <https://www.soumu.go.jp/> (2023.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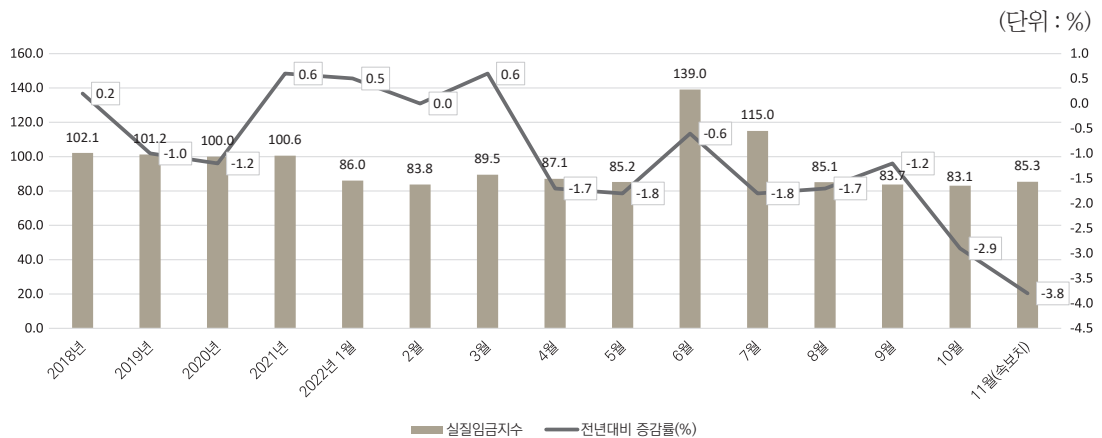
으나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반드시 도심에 거주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졌고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삶 향유 및 귀향 등 다양한 요인이 보도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인구변화가 지속 될지 주목된다.

■ 임금과 노사관계

현재 일본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는 임금인상이다. 노동자 1인당 월 평균임금은 1997년 42만 1,384엔을 정점으로 증감을 거듭해 왔는데, 2021년 기준 36만 8,493엔으로 아직도 최고 평균임금의 87.5%에 불과하다. 최근 물가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도 감소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3.8% 감소했다(그림 4 참조).

노동조합 최대 전국조직인 렌고⁴⁾는 2022년 12월 1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춘

[그림 4] 실질임금지수 추이(2018년~2022년 11월)



주: 5인 이상 사업장, 2020년 기준(2020년=100).

자료: 厚生労働省, 「毎月勤労統計調査 令和4年11月分結果速報」, 2023.1.6.

4) 일본의 전체 노조원 수는 2022년 6월 기준 999만 2천 명으로 5년 만에 1천만 명을 밑돌았는데, 렌고 조합원 수는 695만 2천 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전체 노조 조직률은 16.5%로 전년대비 0.4%p 감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厚生労働省(2022), 「2022年労働組合基礎調査の概況」, <https://www.mhlw.go.jp/> (2023.1.18).

투에서 5%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기본급 3%+정기승급분 2%).⁵⁾ 렌고의 최대 산별연맹인 UA젠센(조합원 약 180만 명)은 렌고보다 1%p 높은 6%를 요구 수준으로 정했다.

최대 사용자단체인 경단련은 2022년 12월 물가를 고려한 임금인상이 중요하다며 각 소속 기업에 기본임금을 중심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12월 경단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좌우하는 것은 임금인상이라고 밝히며 기업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서 1월 5일 사용자단체 세 곳의 합동 신년회에도 참석해 임금인상은 성장과 분배 선순환에 핵심이고 임금인상이야말로 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시대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주목된다. 특히 물가인상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노사정 모두 임금인상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2005년 이래 이어진 1~2%대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3% 임금인상이 가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임금인상이 3%를 넘을 경우 내수 확대로 이어져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임금인상이 어려운 소기업은 폐업할 가능성도 있어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폐업한 기업 수는 2019년 194개, 2020년 120개, 2021년 114개였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폐업 기업 수는 증가한다.⁶⁾ 3% 이상의 임금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 2023년 노동시장 전망

일본은행은 최근 10년간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여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2% 물가인상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완화 정책을 주도해 온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2023년 4월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임 총재는 물가인상 억제 등을 위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리가 얼마나 인상될

5) 連合, 「2023 春季生活闘争方針について」, 2022.12.1.

6) 帝国データバンク(2022), 「全国企業倒産集計(2021年報)」, <https://www.tdb.co.jp/> (2023.1.18).

지 주목되지만, 거액의 국채나 주택대출상환⁷⁾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소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때문인데,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2020년에도 유효구인배율은 1배를 상회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었고, 특히 의료 및 복지 부문은 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취업자 수는 큰 변화 없이 6,700만 명대를 유지하고,⁸⁾ 취업률은 61%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필요해서 새롭게 구직활동을 하는 자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부문에 취업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매칭 및 직업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2023년 최대의 관심사는 임금인상이다. 노동조합의 5% 임금인상 요구가 얼마나 실현될지 미지수이나 사용자단체도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물가인상을 고려한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만큼, 20여 년 만에 3%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하지만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노조의 교섭력이 얼마나 강해질지가 큰 변수이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최근 임금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최근 5년간 만나절 이상 파업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26건, 2019년 27건, 2020년 35건, 2021년 32건으로 30건 전후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도 임금인상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안정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교섭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주목된다. 부분적으로는 임금인상이 어려운 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폐업이 증가하여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들의 재취업과 재훈련을 어떻게 실현할지 역시 정책과제이다. **KLI**

7) 주택대출금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져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8) OECD.Stat(2022), “Economic Outlook No. 112 – November 2022: Japan”, <https://stats.oecd.org/> (2023.1.26).